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야고보서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

(약 4:13-17)

The Life of Man Who does not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James 4:13-17)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곳에 머무를 시간과 돈을 벌 방법과 계획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는 매우 열정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가의 인생을 조명하며 이 사업가를 참으로 어리석고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1. 그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란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 4:14).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실수는 미래에 대해 과도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 27:1).

예수님께서도 이런 우리들의 인생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루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는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눅 12:16-21).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인 그분 앞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철저히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그는 인생이란 아침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지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 4:14).

인생은 짧은 여행입니다. 하룻밤 머물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벧전 1:24).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앞에 갈 날을 계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3.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거늘"(약 4:15).

우리의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서 세속주의나 비판주의에 빠져서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절대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알며, 나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물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man who appears in the text is a famous entrepreneur. He clearly decided a destination, and made a plan to stay, a time when to go, and a way to earn money. He was also passionate and deserved to be praised.

However, James the Apostle says in the spiritual viewpoint that the entrepreneur is very foolish and unreliable.

1. He forgets that the truth of life is to not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Why, you do not even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What is your life? You ar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James 4:14).

The most difficult problem of life is that we do not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Nevertheless, the biggest mistake that we make in our life is that we have an excessive conviction for the future.

"Do not boast about tomorrow, for you do not know what a day may bring" (Prov 27:1).

Jesus quoted a parable of which human's life would be demanded by God overnight in order to realize our life (Luke 12:16-21).

Therefore, we must lay face down before Jesus in a modest way. Before him who supervises our life, we confess our unknown life of what will happen tomorrow, ask his will clearly, and live our life to obey his word.

2. He does not know a life can vanish like a mist

"Why, you do not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What is your life? You ar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James 4:14).

A life is a short trip. It is for us to stay overnight and go. Our life is just like grass (1 Peter 1:24). That's why Moses prayed,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gain a heart of wisdom." A real man of wisdom before Jesus is the man who numbers his 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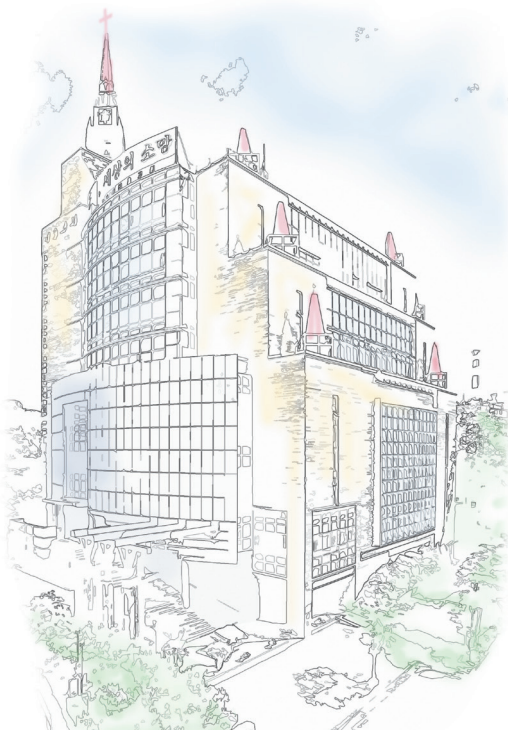
3. We only ask Jesus' will and live our life to obey his word

"Instead, you ought to say, 'if it is the Lord's will, we will live and do this or that'" (James 4:15).

Because we do not know what will happen tomorrow, we should not live our life by being led into the secularism and criticism. James the Apostle clearly tells us that we should live our life with the absolute faith in God. We must realize the creator of the universe, almighty God, and know that he is in charge of our life and death, and the haps and mishaps. Moreover, we must always ask the Lord's will and live our life with our mind believing the eternal God who loves and blesses us.

My beloved Christians,

By asking the Lord's will whatever we do, and living our life,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live our life with the faith of "coram deo"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교회 내에서 모든 서명운동 금지

국가, 공공기관, 기독교 유관 단체 및 노회, 총회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가 허락한 것은 제외

교회는 지난 8월 10일(수) 8월 정기 당회에서 교회 당회는 교회 내에서의 모든 서명운동을 금지하도록 결의하였다.

근래 교회 내에서 교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단, 국가, 공공단체, 기독교 유관 단체 및 상회(노사안에 관한 유인물을 작성, 서명운동 등 성도들을 회, 총회)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이비 이단 조심

올 초부터 교회 주변에서 CBS와 한기총의 해체 그리고 신천지의 교리에 대한 안내문을 돌리면서 심심치 않게 목격되었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 주일에는 2부 예배 후 한티공원에서 50여명의 신천지 교도들이 한기총의 해체와 신천지 교리 안내문을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일까지 일어났으며 지난 주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교회 주변에서 유인물을 돌리며 포교활동을 하여 제지를 당하였다. 성도들은 교회주변에서 이러한 자들을 볼 시 사무국에 연락 바람과 단호히 거부하기 바란다.



자랑스런 호산나인



지난 6월 30일 서울시립서부노인 요양센터(원장 : 이희근)에서 호산나 대학 노인케어학과 졸업생인 윤종현 군이 요양센터에 입사해 장기간 근무하면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장기근속상을 받았다.

윤종현군은 2009년 호산나대학에 입학해 노인케어학과를 전공했고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2011년 서울시립서부노인요양센터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요양보호사로

서 현재까지 5년 장기근속하고 있다. 센터에서 윤종현 군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철저히 시간을 지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양보호사로서 한 직장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는 윤종현 군이 호산나대학의 자랑스러운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이다.



세례교육부 봉사자 모집

세례교육부에서는 세례식 사진촬영을 위해 성심으로 봉사하실 재능을 가지신 일꾼을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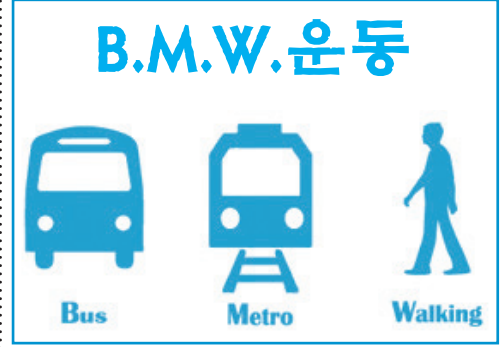
사진의 취미가 있거나 재능이 있는 성도로 봉사를 통해 일생 한번밖에 없는 소중한 세례식 의식에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같이 하기를 소원한다.

신청은 아래 연락처나 주일 1부예배 이후부터 3부예배 전까지 607호실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하다.

* 세례교육부 임승한 집사 010-7743-3223

교회 인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차금지

교회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일날 주차하는 성도들 때문에 해당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교회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주차를 금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중은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어떻게 산 제사를 드릴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 15:13). 주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

3. 거룩함을 드러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산제사의 또 한 가지 성경은 거룩이다. 모든 희생제물은 거룩해야 한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8-19).

오늘날 거룩이라는 개념이 점차 희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메케인 목사는 '내 교회 성도들이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의 거룩함이다'라고 했다.

오늘날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의 위원회에서는 목사의 성경지식, 대화기술, 행정능력, 특히 설교를 얼마나 영감있게 할 수 있는지를 찾는 뿐 목사의 경건생활이나 거룩성에 대하여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목회자들의 서재, 또는 그들이 찾고 읽고 싶은 책들, 그리고 듣고 싶은 강연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함에 대한 것은 별로 인기가 없다는 것도 부끄럽고 걱정스런 일 중 하나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부부관계를 원만히 갖는 방법, 교회성장 비결, 성공 사례와 같은 세미나나 강연이 열리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므로 거룩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러라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만한 것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롬 12:1-2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온다. 즉 '하

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몸을 드리라'고 했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뜻이고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선택 뜻도 가지신다. 고로 내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 노력과 모든 정성을 다 해도 나 자신이 죄인 되고 무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바치고 최선을 다했다 해도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눅 17:10)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로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하신다.(마 25:21)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악한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핍박하고 오해하며 삼키려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편단심으로 충성되되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자.

(다음 주 계속)

8.15 광복 71주년 기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지키자!

신사참배 반대로 광주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순교

내일은 광복 71주년이 되는 광복절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 나라에는 수많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과 일본 강점기의 탄압을 앞장서서 저항하는 순교자가 있었다. 그 가운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순교한 양용근목사가 있다.



순교자 고 양용근 목사
1905 - 1943

장로교 목사, 순교자, 교육자
(사진 출처 : 한국기독교순교자 기념사업회)

매산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양용근은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만 끔직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1923년 일본은 동경과 요코하마에 걸쳐 대지진이 일어났다. 이 큰 지진(관동대지진)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자 일본 위정자들은 이것은 한국인들의 대폭동으로 인한 방화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당시 일본에 있는 6천여명의 재일 한국인을 무차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양용근은 하나님께 남은 생을 바치기로 하고 일생을 목회에 투신하였다.

귀국한 그는 가산을 있는 대로 정리하여 고향 마을에 배울 수도 없고 배우지 못한 가난과 불운에 빠져있는 후진을 양육하기 위하여 『오사학원』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한국사와 성경을 가르쳤다. 그 후 1939년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며 병들고 소외된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애양원교회에서 성역을 감당하였다.

일본은 강점기 말에 접어들면서 더욱 민족교회들을 들볶고 못살게 굴었다. 그중 제일 못할 일은 제1,2,3계명을 모두 범할 이른바 신사참배 강요였

다. 민족교회가 일본의 잔인한 박해를 받아온 역사는 일본의 이 신사참배 강요에서 그 절정에 달하였다. 신사참배는 장로교회에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철저했다. 1931년 9월 경남노회에서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를 부산일보가 보도하여 큰 화제가 되었다.

1936년 초에 장로교 선교사들은 『선교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기독교 학교의 폐쇄를 원칙으로 삼고 신사참배 절대반대운동을 펴다가 1938년에야 평양 내외 학교와 연희전문과 세브란스의전 및 정신학교들이 자진 폐교하면서 결사 반대의 뜻을 펼쳤다.

이같이 일본강점기 때 기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 사랑은 민족 사랑으로 이어져 뜨거운 신앙심과 민족의식으로 언제나 백성들의 모범을 보였다. 양용근목사 역시 신사참배를 반대한 불경죄로 체포되

어 옥고를 치르다가 1943년 12월 5일 광주형무소에서 죽음을 맞았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조선은 그때 하나였다. 민족도 하나, 마음도 하나였다. 그러나 자유가 오자 그 가운데 이념과 이권이 개입되면서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고 저들의 유익을 따라 이 나라가 분단되고 오늘에 이르렀다. 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누가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누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가!

이땅에 희망은 교회뿐이다. 교회가 아무리 망가졌다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할 길은 교회뿐이다. 오늘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제2, 제3의 양용근목사가 되어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된 신앙인으로 민족과 국가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자.

정리 : 허 숙 권사 (편집부)



고 양용근 목사 추모비 (광양기독교100주년기념관 소재)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청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박유진 성도 (청년 1부)

청년부는 청년1, 2부 연합으로 8월 4일(목)부터 6일(토)까지의 2박 3일 동안 아가페타운에서 2016년 여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겨울 연합 수련회에 이어 "청년, 예수님의 마음으로 II"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서는 '높은뜻정의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시는 박병만 목사의 깊이 있는 말씀 중심의 특강, 청년부를 이끌고 계시는 서준권, 정대은, 장재원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과 기도, 여

러 가지 공동체 프로그램과 따뜻한 교제의 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준비된 이번 수련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부스러기가 꽃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지치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상한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함께한 청년 모두가 반짝거리는 눈과 귀와 마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수련회의 모든

시간마다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의분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수련회를 위해 시간, 물질, 노력, 기도 등의 여러 모양으로 후원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이 모든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음악으로 케냐에 복음을 전합니다

연중 만성적인 물 부족지역 유목민 마사이들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공급할 물 부족으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에세끼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며 기도의 제물이었던 저수지 댐 공사를 4월부터 시작되어 대 우기 전에 드디어 완공하였습니다.



초보 어린 꿈나무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잘 훈련되어 내일의 귀중한 인재들이 될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문화 부채춤반: 한국문화를 체험하여 세계로의 길을 활짝 열어 갈 수 있도록 한국 선교사님이 재능을 기부하여 진행되는 7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3) 한국어 교육반: 아마니 리더쉽 학생들과 스템을 위한 한글교육입니다.

이러한 적당한 시기에 완공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 주시는 도고기도팀들과 후원해 주시는 교회, 성도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1.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던 마사이 에세끼초등학교 225명은 매일 점심을 잘 먹고 있으며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잘 세워져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어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쓰러져가는 소풍집 부엌을 벽돌 화덕으로 만들고 창고에 창문과 철문도, 쓸려 내려간 에세끼교회 바닥을 돌 바닥으로 보수하여 아름답게 예배 드리려고 있습니다

2. 아마니 음악학교는 빈민 슬럼가 어려운 아이들을 중심으로 8개 지역에서, 말씀과 기도, 찬양을 통한 회복의 시간과 주님의 리더로 키우기 위해 잘 훈련하고 있습니다

3. 작년 1회 5명의 졸업자를 배출한 찬양리더자 양성 음악학교(2년제 전문인 교육기관)에서 올해는 11명의 학생들이 성경과 전문적인 교회음악 교육 및 음악이론 국가고시 시험을 위하여 준비하며 수업하고 있습니다.

4. 지방학교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4월 4(월)~16(토) 2주간의 일정으로 킬고리 지역 문계 초등학교에서 엘 글로벌비전 (아마니 음악학교의 선교법인)이 주최하여 음악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60년대 정도 수준의 상황인 것을 볼 때 올바른 교육을 받고 가르쳐야 할 현지 지도자 양성에 우리 선교사들이 해야 할 사명과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된 사역>

1) 뉴(New) 아마니 콰이어: 기존 연주 팀의 뒤를 이어 초등학교 4학년~7학년 24명으로 구성된

수 있도록 한국 선교사님이 재능을 기부하여 진행되는 7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3) 한국어 교육반: 아마니 리더쉽 학생들과 스템을 위한 한글교육입니다.

<기도제목>

1. 저희 가정이 매일 매일 주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2. 케냐를 정치, 테러의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치솟는 물가의 안정과 말라리아와 풍토병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3. 진행되는 사역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을 품고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니 8개 지역 음악학교 찬양과 말씀교육, 장학금 지원, 전문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의 사역활동, 마사이 에세끼학교 점심지원, 책걸상 지원을 위하여)

4. 사고 없도록 스쿨 밴을 안전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들이 가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을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5. 아마니 콰이어의 찬양연주와 전도활동으로 영광 돌리는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6. 헌신된 장, 중, 단기 음악 선교사(반주자 악기행정)와 비전 트립팀을 보내 주옵소서

7. 현지인으로 부터 기증받은 1 에이커(1,224평) 땅에 선교사 전문 양성센터(음악목사, 해외 및 지방 선교사, 찬양리더자 음악교사 훈련을 위한) 건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8. 아들 경근이의 건강과 진로, 결혼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케냐 김낙형, 오정녀선교사 올림



아마니 합창단-나이로비한인교회에서 (찬양대 가까운 서울교회 찬양위원회에서 후원)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8월 15일(월) 통일광장기도회(서울역광장에서 서울, 경기, 강원, 충청남북도 연합)에서 북한 구원 통일한국을 이루기 위해 설교한다. 8월 15일(월)-16일(화) 섬김의교회 여름수련회에서 특강을 두 번 한다. 18일(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상임대표, 공동대표 연석회의를 소집한다.

■ 주일식당봉사: 엘리야선교회 (8.14) 바울선교회 (8.21)

■ 금주의 식사 제공: 교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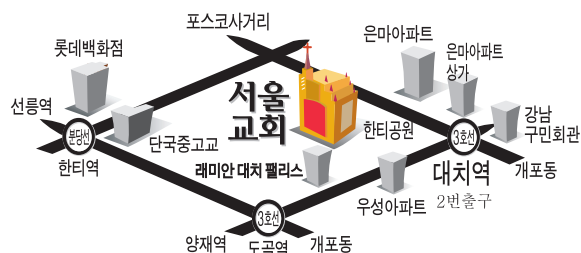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제 71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 B.M.W.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교회 인근 주차질서에 협력하고, 강남구민회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 서울교회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장 소 |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본 당 II, III, IV 층 |
| |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 찬양예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15분 | |
| | 젊은이예배 | 오후 2시 | |
| 수 요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본 당 II, III 층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
| 새 벽 예 배 | 오전 5시 30분(매일) | 본 당 II 층 | |
| 금 요 기 도 회 | 오후 8시 | 본 당 II 층 | |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